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제31권 20호(가해) 2011.4.10

## [묵상]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는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이리 나와라.”고 불러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재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은 이든 산 이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이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이 죽은 이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라면  
산 이들의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움죄는 부자연스러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활기찬 영혼입니다.

잠든 라자로를 깨우신 예수님께서  
뭉치고 엮매인 저희를 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 櫃 -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 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br>(신부님, 수녀님)<br>예비자 교리반<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전신자 성경통독                                                                                                                                                   | 저녁 미사후<br>오전 9:00<br>오전 11:00<br>오전 10:00, 오후 8:00                                                      |
| 금요일 | 병자영성체(1째주)<br>M.E. Sharing(3째주)                                                                                                                                                      | 오전 10:00<br>오후 7:00                                                                                     |
| 토요일 |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br>성령기도회<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br>오후 6: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떼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br>자모회, 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빈첸시오회<br>● 올뜨레아<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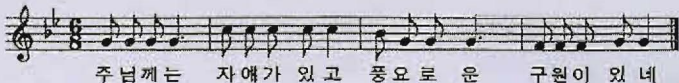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병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5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 김원태 다미아노, 양갑순 마리아<br>(생)                                                                                                                                                                                                                                            |
| 주 일<br>낮 미사 | (연) 마이크 레니안 몬시뇰, 김원태 다미아노,<br>민소예 모니카, 권순봉 요안나, 박송희,<br>엄은섭 도로테오, 윤춘의 스폴라스티카,<br>고준희 제임스, 김재림 마리아, 송병은 바오로,<br>이분옥 안젤라<br>(생)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br>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글라라, 김성중 토마스,<br>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꼬, 김나영 마리아,<br>강순복 요세피나 가정, 정학순 발바라, 김별 스텔라,<br>문지숙 엘리사벳, 신 사베리아 수녀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Ezekiel) 37,12-14

화답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8-11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 음 요한(John) 11,1-45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 33-42 |
| 입당  | 157                 | 149   | 158   |
| 봉헌  | Nails in Your Hands | 268   | 264   |
| 성체  | 423                 | 307   | 284   |
| 파견  | 153                 | 156   | 149   |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시편 작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의 기도 속에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어내셨으며, 우리가 아직 형체도 없을 때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시편 139,13,15-16 참조). 우리는 엄청난 기쁨에 겨워 외칩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외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 (시편 139,14). 과연 "이 죽을 목숨이 곤경과 감추어진 신비와, 고통과 피할 수 없는 덧없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기쁨과 영광 속에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늘 새롭고 감동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인간과 그의 생명은 단순히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놀라움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신성에 가까운 품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8,5-6 참조).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과, 살아가고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느님 영광의 형상을 본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상인 모든 인간들 안에서 이 영광을 경축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만 이 생명의 선물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생명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맛보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례주년에 따른 경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한 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사들이다. 성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교의 생명 안에 현존하시고 구원을 위해 활동하신다는 유효한 표징이다. 성사는 우리를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며, 생명과 고통과 죽음의 총명한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 이 의식들이 지닌 의미에 대한 참된 재발견과 더 깊은 이해의 덕분으로, 우리의 전례적인 경축행위들, 특히 성사의 거행은 출생과,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더욱 총명한 진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그 전례 거행의 순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순간들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85).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문화와 민족들의 전통과 관습 속에 존재하는 풍부한 행위와 상징들을 평가하고 선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여러 다른 나라와 문화의 백성들은, 새로 태어난 생명에 대한 기쁨, 개인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 고통받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노인과 임종자에 대한 친절함, 애통해 하는 사람의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불멸성에 대한 희망과 열망 등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기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 (◆계속)

## 영원의 캔버스에 그려지는 영혼의 붓질

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나 모아진 봉우리로 말을 걸어오고 초록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대지를 서서히 물 들어 감니다. 봄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꽃씨를 뿌리고 연초록의 붓질로 밑그림을 그려가지만 마음의 캠퍼스



한 곁에서 솟구치는 애잔함만큼은 어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초록의 붓질도 봄의 토양 속에 자리한 듯 생명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일겁니다.

봄은 그렇게 생명이란 단지 살아 숨 쉬는 이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손길 위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마도 사순절이 영원의 캠퍼스에 그려지는 영혼의 붓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나자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나자로의 부활이 단순한 기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음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눈물과 더불어 나자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에게 죽음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영원한 박탈이며 동시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의 영원한 상실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앞에서는 영원한 단절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더욱이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단절이란 있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나자로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인들의 통공을 말하고 하늘과 땅, 죽은이와 산이의 통교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느님의 바다에 담겨질 때, 우리 사랑의 원천적인

기회 박탈은 없으리라는 믿음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밀물이든 썰물이든 바닷속에 머무는 한,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이든 죽음이든 하느님의 손길 위에 자리하는 한 영원한 생명의 바다에 자리합니다. 해서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들 하지만 죽음보다 더한 것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떠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기도합니다.

연초록의 붓질로도 다 지울 수 없는 듯 생명의 흔적처럼 죽음조차 영원히 묻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캠퍼스에 그려지는 영혼의 붓질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물감이 되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아름답게 채색되어지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절실한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처럼 간절함으로 두손끝이 모아지는 사순절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삼각지성당 주임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박소영<br>프란치스카   | 남성철<br>베네딕도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권오상<br>바오로  | 이영석<br>크리스토퍼 |
| 제2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권순길<br>체칠리아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1반  |

### 다음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박희자<br>마리아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치스카   | 박혜경<br>레나타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서 1반 |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4월17일(주일) : 토런스 동2반(콩나물우거지국밥 \$3)

- 4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개인 또는 제단체로부터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견진성사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 이상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 한달간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운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남가주 소식

###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괴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 제3회 남가주 청년연합 찬양수련회

- 일시 : 4월29일(금)~5월1일(주일)
- 주제 : "주님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 장소 : PCCCI(빅베어 레이크)
- 대상 : 남가주 한인가톨릭청년
- 회비 : \$110 \* 문의 : ☎(714)200-9862 김정옥

###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 ◆ 제1회 가톨릭청소년 성화 그리기 대회

- 주제와 제목 :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23)
- 대상 : 초중고등부의 영세받은 학생
- 응모비 : \$10 \* 마감 : 5월21일
- 보낼곳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사무실  
이혜숙 카타리나 ☎(310)953-7474
- 주최 : 남가주한인가톨릭미협, 가톨릭신문 공동

##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변혜경 올리아나<br>920-5153    |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br>4/8(금)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유선식 필립보 326-2184<br>4/9(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00-5612    |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713-7783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이병찬 안토니오 989-0366<br>4/16(토) 오후 6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br>4/24(일) 낮 12시30분 델슨 팍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권영옥 루시아 720-2876<br>4/11(월) 오전 10시30분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현석주 아오스당 433-9075<br>4/15(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안혜진 세레나 972-9193<br>4/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안희경크리스티나<br>750-4051    | 송 마이클 850-2822<br>4/9(토) 오후 6시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박정희 마리아 800-3709<br>4/8(금) 오후 7시           |
|                                  | 2   | 1반과 같음                  | 1반과 같음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주대종 다니엘 818-640-3656<br>4/16(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박종선 리비나 748-7323<br>4/9(토)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배진영 프란치스코 544-4807<br>4/22(금) 오후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377-7063   | 유석영 레오 997-5388<br>4/9(토)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반나영 세실리아 293-5120<br>4/12(화) 오전 10시30분     |

##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 시

## 따뜻한 이야기

## 암환자 살리기

암환자를 처음 만나면 나는 병에 관련된 질문 외에 환자의 가족사항, 직업, 경제적, 정신적,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꼭 물어본다. 남편과 사별, 사업실패, 사기, 고부간 갈등으로 속앓이를 해왔다는 등의 내용은 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고생하셨네요,

그래요.” 하며 공감을 하면 환자들은 자신의 힘들고 서러웠던 삶을 스스로 털어놓는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을까?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네요.” 하며 눈물을 짓는 환우들도 있다. 첫 진찰 시간에서의 이런 대화는 의사-환자와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어 환자가 신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오래전 일이다. A씨는 유방암수술을 받고 항암제치료 후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가족사항을 알아보니 남편과 결혼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사람이 살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늘 조심스럽고 긴장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만 덜커덕 유방암을 진단받게 된 것이었다. 수술, 힘든 항암제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안일,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해야 했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위로와 지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개신교 모태신앙을 갖고 자라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생활해왔던 A씨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지었다.

나는 암 투병 중인 A씨가 현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정신건강상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여 적어도 투병하는 기간만이라도 혹은 치료종료 후 얼마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 것을 조언하였다. 남편은 불효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의사가 강력히 권고했다는 말에 누이들과 상의



하였고 당분간 누이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게 된 딸과 어머니 모두가 불편한 상황인지를, 결국 최종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아들은 주말부로 서울에 와서 지내게 되었다. 이후 진료실을 들어오는 A씨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환하게 밝은 모습이었다.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시어머니도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모처럼 살림을 살면서 매우 행복해하신다고 하였다. A씨는 한 달간의 방사선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고 남편과의 행복한 주말부부로 잘 지내셨다.

A씨를 생각하며 나는 의사가 정해진 치료만 하면 됐지 무슨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이래라저래라 했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본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부분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리시려는 뜻을 라자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짧은 격려의 한마디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 ◆이창걸 시몬 /

연세의대 방사선 종양학교실 교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힘보다 언제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 복녀 마더 테레사 -